

코로나19 시대 국내 최고 여행지는? “완도”

컨슈머인사이트, 여름 휴가자 1만6천여명 만족도 조사 ‘1위’ “도시보다 자연·힐링 선호... 명사십리·해양치유 프로그램 완벽”

올 여름 가장 인기 있었던 국내 최고 여행지는 어디였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완도군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0년 여름휴가 여행 조사' 결과, 완도군이 779점(1000점 만점)으로 전국 46개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7점 오른 점수다.
이번 '여름휴가 여행 조사'는 1박 이상 국내로 휴가를 다녀온 1만6035명을 대상으로 주 여행지와 만족도, 추천 의향 등을 물었다.
완도군은 국내 최초로 2년 연속 친환경해변 국제인증인 '블루플래그'를 받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을 비롯해 보길대 예술리, 금일 명사십리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했다.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생일도 금곡해수욕장 주변에 리조트형 관광농원을 개장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확장했다.
특히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와 '낮엔 해수욕장, 밤엔 문화욕장' 프로그램과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여행지로 꼽혔다.
폐허로 남아있던 해변의 상가를 철거, 마늘 비치와 공원을 조성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3단계 방역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평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시범 운영한 자동차량장도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7월24일부터 24일간 운영한 필라테스, 노르딕워킹, 모래찜질, 다시마 마스크 팩 체험, 명상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총 3134명이 참여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국내 최초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한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군은 올해 명사십리 해변에 멀티플렉스를 설치, 문화욕장으로도 활용했다. <완도군 제공>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은 5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0여 일 단축 운영했는데도 하루 평균 2500명씩 더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우철 완도군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1위는 민관이 협심해 코로나시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가꾸어 온 결과”라며 “완도의 청정한 자연한

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라오스에서 코라오 그룹을 경영하는 오세영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2020 장보고 한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장보고글로벌재단 제공>

‘장보고 한상’ 대상에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

라오스에서 32개 계열사 운영

라오스에서 코라오 그룹을 경영하는 오세영 회장이 '제5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과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2020 장보고 한상 시상식'을 열고, 오 회장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 회장은 라오스에서 자동차 제조·금융·농업·엔론 등 32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연매출 1조8000억 원을 올리는 코라오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멕시코 보안솔루션 업체인 오투그룹의 오병문(55) 회장은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을, 왕청일(80) 일본 미쓰코시토지주식회사 사장은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중국에서 장신구 생산과 인터넷 사업을 하는 박신현(60) 다렌유승식품유한공사 사장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호주에서 한국식품을 유통하는 정광수(52) 통일무역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필리핀에서 선박·해상물류·부동산·금융 등 12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포스콘그룹 김종팔(57) 회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장보고스타트업 어워드 대회'에서 1위는 코머신이 선정돼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2위는 닥터 네일, 3위는 활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선정돼 200만원씩의 상금을 받았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코로나 지친 시민, 뮤지컬로 위로 받으세요”

하당 평화광장서 6일 오후 5시 'fall in 목포' 무료 공연 ‘가을에 빠지다 목포에 빠지다’ 주제... ‘목포의 눈물’ 합창

목포시가 가을맞이 뮤지컬 공연으로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한다.
목포시는 오는 6일 오후 5시 하당 평화광장에서 ‘가을에 빠지다 목포에 빠지다’를 주제로 ‘fall in 목포’ 공연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평화광장 특설무대에 올려지는 공연은 뮤지컬 2편(오! 당신이 잠든사이, 아리 아리리)과 비언어로 진행되는 난버벌(무언극) 4편(세프, 페인터즈, 점프, 하이마스크) 등 총 6개 창작물이다. 마무리는 목포시립합창단이 관객들과 ‘목포의 눈물’을 함께 부르며 깊어가는 가을밤 정취를 만끽한다.

공연은 각 20분씩 2시간에 걸쳐 펼쳐진다.
공연은 (사)한국공연관광협회가 무료로 지원한다. 공연관광협회는 문체부 후원을 받아 국내 순회 특별공연을 하고 있는 고품격 공연단체다.
현재 ‘힘내라 대한민국 공연여행’을 추진, 중국 항저우·상하이 등에서 ‘k-년버벌 페스티벌’ 공연과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공연은 당초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목포항구 축제에 함께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자 이번에 막을 올리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 참석자는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 체크,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관람석도 4㎡당 1명씩 의자를 배치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면서 야외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연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관객을 모집해 사회자가 중간중간 인터넷 관객과 무대 화면을 통해 대화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든 역경에 처해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지치고 힘든 생활에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노인가구 사랑에 보금자리 고쳐주기’ 새마을문고 목포지부, 김미순씨 등 4가구 대상

새마을문고 목포시지부는 목포시농협동조합(이사장 박우영) 협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혼자 사는 노인 등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에(愛) 보금자리 고쳐주기’ 사업을 펼쳤다.(사진)
이번 보금자리 고쳐주기는 지난달 27일과 30일 목포시 보리마당로 김미순(82) 씨 등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목포시농협 봉사단과 목포시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주방-거실을 새로 꾸며주는 사랑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